

15. 한 시대의 현장 일군갱도진지(日軍坑道陣地)²¹⁾

지금도 오키나와전(沖繩戰)²²⁾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20만 명이 죽은 전쟁 희생자 가운데 절반은 군인이 아닌 오키나와인 이었다.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을 둘러본 사람이면 그 날의 섬뜩한 상황에 몸서리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마터면 제주도도 그런 운명에 놓일 뻔했던 섬이라고 할 것이다. 그 섬찍지근한 이른바 ‘결칠호작전(決七號作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일군(日軍)의 전투를 위한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

21) 『한라일보』(삼각봉), 2005. 06. 30 (목), 제주문화원장.

22) 신문에는 ‘庶繩戰’으로 오기 되어 있다. ‘沖繩戰’으로 바로 잡음.

한 것은 1916년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가 설치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19년에는 함북 나남(羅南)에 육군 제19사단이 창설되고 그 이듬해에는 서울 용산(龍山)에 제20사단이 창설되었다. 진해(鎭海) 원산(元山) 나남에는 해군경비부가 설치되었다.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26년부터 모슬포에 해군항공 기지를 위한 비행장건설이 추진되면서 부터라고 할 것이다. 1931년에는 오모무라(大村) 해군항공대 2천5백명과 전투기 25대가 배치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이 기지는 난징(南京)을 비롯한 중국폭격기지로 한 몫 하게 되었다. 이때 기록을 보면 36회 출격 연 6백기에 투하된 폭탄이 3백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태평양연안 여러 지구에 진을 치고 있던 일군이 미군의 반격에 몰려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일군은 마침내 최후의 ‘본토결전(本土決戰)계획’을 세우게 된다.

1945년 2월 일군 참모본부는 조선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은 제17방면군이 맡고 그 후방 지원을 조선군관구사령부(朝鮮軍管區司令部)가 맡도록 하였다. 이 제17방면군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을 사수할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결7호작전’은 바로 이 제17방면군의 ‘작명’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을 방어할 작전계획이었다.

이 ‘결7호작전’이 시달된 것이 1945년 3월 20일이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는 나가츠(永津) 중장(뒤에 도오아며(遠山) 중장으로 교체)이 이끄는 제58군 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그 산하에 제96사단(사단장·飯沼중장·9천명), 제111사단(사단장·岩崎중장·1만2천명), 제121사단(正井중장·1만3천명), 독립혼성(獨立混成) 제108여단(여단장·平岡소장)이 배치되고 그밖에 여러 포대

대, 비행대대, 근무부대 등이 속속 배치되었다.

이때부터 제주도에는 지상 진지에 그치지 않고 미군의 폭, 포격으로부터 엄호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지하갱도진지(地下坑道陣地)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제58군 배비개견도(配備概見圖)’, ‘제주도 기지(基地) 시설 위치도’ 등 제주도에 관한 많은 일본방위청자료들이 발굴되면서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제주도의 지하갱도는 연장(延長)이 15,000m, 수도(隧道)면적이 약 57,000㎡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열도 안에 있는 나가노(長野)의 대본영(大本營) 지하시설이나 최대의 군사시설로 알려진 해군 제1항공기술창(航空技術廠) 지하공장 보다도 1.5배나 더 큰 것으로 밝혀져 있다.

요즈음 이 지하일군갱도진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에 내놓은 보고서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흔히 일본군 진지동굴(陣地洞窟)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념의 착오라고 생각된다. 사람이 파놓은 시설을 동굴로 보는 태도는 개념상 모순이 있다. 일본도 갱도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갱도진지’라야 옳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나온 보고서 등을 보면 그릇된 진지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놓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군 갱도진지는 참으로 한 시대의 불행했던 역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땅히 보존시켜 역사자원으로 길이 후대에 이어줘야 하리라고 본다.